

2024 새해 이렇게

김한중 장성군수

행복이 일상 되고 희망이 미래가 되는 장성 만들 것



국립심뇌혈관연구소·카카오데이터센터 등 차질없는 건립 박차 대학생 등록금·초중고 입학 축하금... 청소년 꿈 아낌없이 지원

“근거한 청렴 정신을 바탕으로 장성의 찬란한 미래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4일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2024년은 5만 군민과 함께 장성 발전의 대전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군은 지난해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확정, 2025년 전남도민체전 유치, 장성카카오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김 군수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희망의 씨앗’들을 올해부터 심기 시작한다”면서 “장성카카오데이터센터와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가족센터, 삼계면 청소년문화의집, 청년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고 덧붙였다.

장성군 남면 첨단3지구에 들어서는 장성카카오데이터센터는 사업비 4900억원 규모 데이터산업

기반시설이다.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등 첨단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10월 착공한다.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실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올해 착공해 2025년 완공할 예정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아열대작물 재배 연구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중장기 사업도 차질 없이 단계를 밟아간다. 지난해 16년 숙원을 이룬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 설립’이 계획대로 2027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전남도, 질병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첨단의료산업 중심도시로 발돋움해 충북 오송, 대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며 “의료와 관광 분야 연계로 ‘치유경제’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00만 장성 관광시대’를 여는 키워드는 ‘음

식’이다. 경쟁력 있는 명소에 음식 거리를 조성하는 ‘장성 5대 맛거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업무협약 성과도 기대를 모은다. 김한중 군수는 “지난해 협약을 체결한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 CJ푸드빌과 함께 장성의 우수 식재료로 지역특화음식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농축산업과 골목상권, 지역경제가 더불어 상승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고 했다.

전남 대표축제에 4회 선정된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황룡강 계절꽃을 무대로 펼쳐지는 만큼 새로운 변화가 전망된다. 김 군수는 “올해부터 황룡강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됨에 따라 하천 관리를 환경부가 맡게 됐다”면서 “홍수피해 예방은 물론, 하천 관리에 드는 예산을 아낄 수 있어 긍정적이지만, 하천시설 이용 시 협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어 장기적 관점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난해 크게 주목받은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이어간다. 학기당 200만 원씩 총 8학기를 지원해 가정경제 부담을 낮춘다. 초·중·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축하금, 청소년 수당도 지급한다.

그는 “장성에 살면 교육 걱정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정 추진의 동력은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찾는다.

김 군수는 “공직사회가 건강하면 군민이 편안하다”면서 “민선 8기 들어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는 등 모든 공직자가 땀땀 땀땀 청렴한 조직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지당 송승, 아곡 박수량 등 청백리를 배출한 ‘청백리의 고장’ 답게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지역 화합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자랑스러운 장성군민과 함께 화합과 포용, 정진의 2024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며 “행복이 일상이 되는 지역사회, 희망이 미래가 되는 장성군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고향사랑기부금 10억원 돌파...목표 초과 달성

6766건...100만원 이상 고액 86명
광주 1513명 최다...서울·경기 순

나주시가 지난 한 해 동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 10억원을 넘기면서 첫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1일 기준 나주시 누적 고향사랑기부금은 10억6700만원(6766건)으로 집계됐다.

금액별 기부 건수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 기부자가 6680건으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은 8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기부 건수는 광주시가 15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우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938명), 경기(925명)가 뒤를 이었다.

선호하는 답례품은 나주배, 삼목세트, 등심, 잡곡 꾸러미 순이었다. 가공식품보다는 즉석에서 소비할 수 있는 농특산물이 주를 이뤘다.

나주시 답례품은 대표 특산물인 나주배를 비롯해 쌀·잡곡, 한우·돼지고기, 수성 홍어 등 농축산물과 나주곰탕, 배즙, 각종 장류, 나주배살빵 등 가공식품, 나주물 마일리지·나주사랑상품권 등 총 34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나주에서 생산되는 명품 공예품인 ‘나주반’과 천연염색제품, 머그잔 등 생활용품과 목사내야 숙박, 국립나주숲체원, 주택화재 안전꾸러미, 별초대행 등 체험·서비스형 답례품도 눈길을 끈다. 나주시는 차별성과 다양성, 소비자 기호, 지역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답례품 발굴에도 힘



나주시 고향사랑팀이 서울 용산역을 찾아 고향사랑기부금을 홍보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써왔다.

나주시는 기부금 10억원 돌파와 더불어 지역 발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 활용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나주시는 기금 활용처 발굴을 위해 지난해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총 57건 중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사업 3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꿈나무 동지 조성’, ‘100원 빨래방 마을 공동 운영’, ‘반려동물 친화도시 문화축제’다.

나주시는 기부제도 시행에 앞서 2022년 9월 전담 조직인 고향사랑팀을 신설했다. 그동안 관광서, 이전공공기관, 기업체, 출향 향우 단체, 자매

도시 등을 찾아 적극적인 동참 운동, 답례품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달성은 늘 애항심으로 고향을 응원해주는 전국 각지 향우와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부금이 기부자는 물론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공익, 복리 증진, 지역발전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활용처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주지 이외 지역에 일정 금액(최대 50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기부를 받은 지역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농업대학 2개반 80명 등 교육

함평군이 함평군농업대학과 신규농업인(귀농) 영농 정착 지원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교육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농업인과 귀농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함평군농업대학은 한우반과 포도반 2개 과정을 운영한다. 과정별로 40명씩, 총 8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신규 농업인·귀농인을 위한 기초적 소양 교육과 품목교육을 진행하는 기초 영농 기술교육은 4월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한다. 60여 명 안팎 교육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귀농 연수생과 선도 농가의 멘토·멘티 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현장 실습 교육에 대해서는 6곳을 이달 31일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팀(061-320-2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정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전문 농업인 육성 및 6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농업인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수협 을 첫 위판...1억5000만원 위판고

풍어 기원 풍어제도 함께 열려

장흥군은 지난 3일 장흥군수협 주관 ‘2024년 갑진년 초매식·풍어제’를 치렀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백광철·김기용 군의원, 이성배 장흥군수협 조합장, 어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지역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과 풍어를 기원했다.

올해 첫 위판에는 장흥 친환경 무산김과 특량만에서 포획한 낙지가 주를 이뤘다. 이날 총 1억 5000만원의 위판고를 달성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초매식과 풍어제를 통해 어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한다”며 “장흥 무산김뿐만 아니라 특량만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홍보와 판로개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